

II. 지역정보하이라이트

중남미지역

▣ 중남미에서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 전세계 25개국을 대상으로 근무여건이 좋은 기업을 선정하고 있는 Great Place to Work Institute에서 “중남미에서 근무하기 좋은 100대 기업”을 발표했다.
- 동 조사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우루과이 등 중남미 7개국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동 지역 900개 회사의 직원 10만명을 대상으로 인력관리 정책 및 문화 등에 대해 조사했음. 즉, 직장 내에서의 신뢰, 자부심, 동료애 등을 측정하는 Trust Index와 조직 및 경영문화 등에 대한 Culture Audit, 2가지의 종류의 설문조사를 진행했음.

< 중남미에서 근무하기 좋은 10대 기업 리스트 >

No.	회사명	부문	종업원수	국가
1	ADT Security Services	보안시스템	780	칠레
2	Cadbury Adams Colombia	제과	985	콜롬비아
3	Interproteccion Agentes de Seguros y Finanzas	금융, 보험	127	멕시코
4	J & V Resguardo	전자보안	1977	페루
5	JW Marriott Hotel & Stellaris Casino Lima	서비스	375	페루
6	Magazine Luiza	가전, 가구	2987	브라질
7	Microsoft	IT	651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멕시코, 페루
8	Novo Nordisk	의약품	56	아르헨티나
9	Procter Gamble	소비재	1001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페루
10	Redecard	데이터저장	665	브라질

- 위의 표와 같이 칠레의 ADT Security Services, 콜롬비아의 Cadbury Adams Colombia, 멕시코의 Interproteccion Agentes de Seguros y Finanzas, 페루 J & V Resguardo, JW Marriott Hotel & Stellaris Casino Lima 등 10개 기업이 “중남미에서 근무하기 좋은 10대 기업”에 선정되었음. 참고로 Great Place to Work Institute는 리스트상에 상위 10개 기업간에 별도의 순위를 매기지 않고 알파벳순으로만 나열하고 있으며, 나머지 90개 기업 리스트도 순위별이 아닌 알파벳 순으로 나열되어 있음.
- 중남미에서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리스트에는 종업원이 55명에 불과한 아르헨티나 Becton Dickinson에서부터 종업원이 58,000명에 달하는 브라질의 Pao de Acucar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규모의 회사가 속해있음.

- 국가별로 살펴보면, 브라질이 60개사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멕시코 17개사, 칠레 16개사, 페루 14개사, 아르헨티나 12개사. 콜롬비아 7개사. 우루과이 3개사로 나타났다. 출신지별로는 중남미 회사가 47개사, 외국계회사가 52개사로 조사되었음. 특히 미국계 다국적기업이 35개사나 차지했으며, Microsoft와 Procter&Gamble이 10위안에 속해 주목을 받았음.
- 종업원들의 내부 만족도가 높은 기업의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멕시코의 Eli Lilly사는 매월 생일인 직원을 위한 “생일 아침식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달에 생일인 직원들이 회사 사장과 아침식사를 하면서 관심 주제에 대한 자유로운 대화를 나누는 행사임. 페루 Ernst & Young 사의 경우, 종업원들이 사전에 익명으로 준비한 질문들에 대해서 임원 및 간부들이 대답하는 Happy Hours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또한, Visanet de Peru는 주말에 직원들이 El Pueblo Resort를 토털 패키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해놓고 있음.
- Great Place to Work Institute는 동일한 조사를 미국, 유럽 등에서도 진행하고 있으므로, 다른 지역 조사결과와 비교해볼 때 중남미에서 일하기 좋은 회사로 손꼽히는 기업들은 세계적인 수준에서도 근무환경이 좋은 곳으로 평가하고 있음. 또한, 중남미 지역의 결과를 살펴보면, 회사 직원간 동료애, 자유로운 휴가 사용 면에서 미국, 유럽에 비해 점수가 매우 낮은 반면, 직원들의 직장에 대한 자부심, 승진 가능성, 즐거운 근무 분위기 면에서 훨씬 높은 점수를 나타냈음.
- 동 조사 이외에도 중남미지역 유력잡지 America Economia가 인력관리전문 컨설팅회사 Hewitt Associates와 함께 “중남미에서 가장 근무하기 좋은 회사 25개사” 리스트를 발표하는 등 최근 중남미 지역에서 인력개발 및 근무여건 개선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이런 종류의 조사 증가가 중남미 기업들이 근무여건이 좋은 기업들의 사례를 거울삼아 회사 인력개발 정책 및 근무환경을 개선해 나가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문의처 : 멕시코무역관 김윤희 marisol@kotra.or.kr)